

## 研究 幻想曲

金 貞 淑

(嶺南大 國史學科)

大學訓長에게도 나이가 있다. 즉, 經綸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서도 훈장이란 참으로 이상한 직업이다. 분명히 初任 내지 新任教授라는 말은 있으면서도 그들이 저지룰 수 있는 失手의 범위는 무척이나 적다(교수라는 직업 자체가 실수를 許與하기 어려운 職業이기는 하지만). 강의 첫 시간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年歲드신 교수님들은 여러분께 哲學을 전하실 것이고, 젊은 선생은 問題를 발견하고 分析하는 방법을 나눌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나서도 마음이 두겁기는 메한가지다.

教授란 무엇일까? 흔히들 교수란 研究機能과 教授機能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專門學者이면서 동시에 教授者인 교수. 그런데 이 두 기능은 참으로 상반된다. 연구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자신을 고립시키는 이른바 ‘自發的 孤獨’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수를 제대로 하려면 학생을 파악하고, 애정을 기울이며 함께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라가 近代化되던 시기에는 무엇이든 조금만 알면 가르칠 수 있었다. 그것이 社會에 필요한 일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생활과 신분을 上昇시켜 주는 手段이 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제

는 건 일가 천척을 통틀어 유일하게 고학력 소지자가 교수뿐일 수도 있었던 地方大學의 학생들에게조차 이미 그 상황은 바뀌었다. 아울러 사회, 정부, 학생 앞에서 可視的이든 非可視的이든 沈黙만을 지켜 왔다는 教授集團에 쏟아지는 비난들이 신임 선생에게는 무거운 짐이 된다. 요사이 「학교야 학교야 뭐하니?」라는 책이 시중에 돌고 있는 것을 보면서, 家庭과 社會가 擔當해야 할 몫까지 일방적으로 學校에 떠넘기는 그 期待感을 버겨워 하면서도 한편 학교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더우기 이번 여름 방학 중 멕시코를 旅行하면서,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이지만 참 작은 나라임을 切感했다. 自然資源이 적어 人力資源을 啓發해야 하고, 또 情報에 민감하여 國際社會에 대응해야 하는 나라에서의 선생이란 무엇인가? 나의 선생님은 “교수란 20년 후의 이 사회에 무엇이 필요할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너무 힘겹고 두려워서인가? 先學들과 同僚들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하나의 환상일지도 모르지만—생각해 보곤 한다. 恩師님들께 드리는 투정처럼 말이다.

물론 大學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사람들이 좋은 制度를 검토하고 있는 줄로 안다. 나에게서는 教授 相互間의 도움, 意思交換과 공동 연구로 再充電의 도움을 얻고 아울러 時間을 절약할 방법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상하지만 사실인 것은 교수는 間接經驗의 폭이 좁은 생활을 하기 쉽다는 점이다. 일례로 專攻 이외의 책을 읽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 教授然하며 자신의 활동 폭을 좁히는 일은 많지 않은지?

이러한 반성과 함께 圖書館의 활용과 자료 수집, 교수간의 강의 참여 및 공동 연구, 研究室 문제 등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교수하면 月給이 많다고들 한다. 실제로 생각해 보면 많은가? 책을 工場의 機械라고 한다면, 우리의 현실은 우리 스스로 기계를 사고 있는 셈이 아닌가? 물론 교수란 自身을 實現하고 있는 職業이므로 월급의 많고 적음은 논할 바가 못된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책의 活用度를 더욱 강조하고 싶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본다. 나는 현재 개인 연구실에 넘치도록 많은 책을 쌓아놓고 있는데 아마 중복되는 책도 많을 것이다. 물론 필요한 책은 자신이 직접 사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도서관에서 모든 書籍을 여러 부씩 끌고부 들여 놓는다고 하자. 각 單科大學別로 있어도 좋고 혹은 각 學科마다 도서관이 따로 있어도 좋다. 그런 후에 아직도 필요한 책이 있으면 자신이 구입하여 보관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閣架의 利用에 있어서는 開架式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잇점이 있을 수 있다. 우선은 선생 자신이 도서관에 나와 책을 볼 수 있으므로 隣接分野의 학문을 섭렵할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서관에서 학생과 동료들을 만나면 같은 學問 研究者로서 그 마주침 자체가 백 마디 말보다

훨씬 나은 격려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나는 學生時節에 서울大 奎章閣에서 책장을 넘기던 韓滂勳 교수를 보고, 또 몇 년 뒤에 소르본 대학 도서관의 침침한 조명 밑에서 책을 읽고 있던 T'serstevens 교수를 보고 방해가 될까봐 차마 인사는 못했으나 그 모습들 자체에서 많은 격려를 받았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도서관의 활용이 學問의 成長 速度를 더욱 가속화시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最新刊 書籍은 교수가 가지고 있는 편인데, 이것은 자신이 외국 유학 동안에 수집한 것이거나 그밖의 여러 경로를 통하여 소장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이것을 빌려 보는 정도이다. 그러나 그 전공 분야에서 가장 최근의 것일지라도 圖書館에서 수집하는 것이 個人的 힘으로 하는 것보다 더 組織的이고 綜合的이며 迅速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흔히 외국에서 돌아오면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얼마 안 있어 오늘의 나처럼 스스로 책을 수집하게 된다. 꼭 자신의 책으로 연구해야만 되는 풍토이기 때문일까?

다음으로 教授들도 자신에게 필요한 講義에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적어도 博士課程 수준의 강의에서 同僚教授가 새로운 資料나 아직 자신이 읽어 보지 못한 자료로 강의를 할 때, 그 곳에 들어가서 듣고 같이 생각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다면 서로의 成長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일단 교수가 되면 새로운 개념 하나 배우기가 얼마나 힘든가? 그러나 강의실에서 學生과 마주쳤을 때 서로가 당황하거나 또는 동료 교수가 자신의 강의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수가 계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겠는가?

共同研究 또한 중요하다. 내게는 세미나에서 만나는 그룹이 있다. 大邱地域 내의 같은 專攻 專任教授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모이는 것인데,

많은 의견 교환과 공부를 한다. 뿐만 아니라 韓國 古代史 研究會 발표 때는 무척이나 솔직하게 토론을 한다. 만약 이곳에 흐르는 진실을 믿지 못한다면 다시 낮을 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討論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도움을 얻고, 아울러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된다. 사실 우리의 現實에서 전공의 細分化가 학문의 발달 속도를 빠르게 했지만, 그 세분화된 영역 간에 큰 성벽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그리고 학생들은 너무 일찍 세분화된 학문 영역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닌가도 싶다. 만약 醫師들이 지나치게 專門化·細分化되어 自己 分野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환자가 자기가 아픈 부위를 잘 알아 자기에게 맞는 病院을 찾아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다. 현재 學問의 추세는 종합화 현상을 보이고 있고 眞理를 찾는 방법은 가능한 모든 자료를 동원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공동 연구 경향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또 그것이 이 좁은 땅 안에서 일고 있는 學緣의 부정적인 현상을 해소시켜 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教授의 社會參與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현재 해결해야 할 宿題가 많은 우리 사회에서의 또 하나의 教授反省論은 ‘책상 물림 공부’와 “너무 현실에서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현 狀況에서도 교수에게는 연구 이외의 활동이 많다. 學生指導, 각종 회의와 분담 업무, 나아가 自身の 학문 분야에서 地域社會的·國家的·世界的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등등... 엄밀히 말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교수에게 요구되는 활동이며 교수가 해낼 수 있고 해내야 하는 활동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의 형태이다. 교수 나름대로 研究와 教授라는 活動을 열심히 하면서도 현실과 동떨어져 상아탑 속에 안주하

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며 사회 참여의 활동에서 소외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해답은 歷史 속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우리 社會가 학문 연구의 역사가 짧은 데도 불구하고 참 많이 성장해 왔음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변화의 시기가 온 것이다. 近代 學問이 시작되던 開化期에는 모든 知識이 다 필요했고, 自身이 하고 싶은 것과 자신이 깨친 것만으로도 선생이 될 수 있었으며, 또한 그것이 民族에게 필요했던 것 같다. 그러나 과연 오늘날도 그러한가? 요즘 學生들은 教科課程 協議會에 참여하고 있다.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은 차치해 두고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예전에 선생이 가르쳐 주는 것은 모두 배우고 자신이 모르는 것이면 다 배웠던 학생들이 이제는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先生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과 學生이 배워야 한다는 것에 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그 하나는 우리 사회의 研究人員의 分布가 편중되어 있다는 데 이유가 있다. 이 사회에 지식인이 너무 많은 것은 결코 아니며 또 많아서 나쁠 것은 없다고 본다. 그런데 연구의 분야와 인원 분포는 조정되어야 하겠다. 우선 개인적으로는 專攻을 결정하기 전에 무엇이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지식이며 자신의 적성에 맞는가라는 물음을 해결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學者가 배출될 때는 자기 선생의 전공이어서 그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와 미래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전공이 택해져야 하겠다. 또한 늘 제시되어야 하는 정보는 사회 구조 안에서의 需給問題에 관한 정보이다. 모든 것을 政府의 책임으로 묻는 것은 안 되겠으나, 정부만한 힘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社會를 이끄는 집단에서 研究人力의 操縱에 대한 計劃과 誘導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北方外交를 포방할 의도가 있었다면 미리 10, 20년 전부터 그 나라에 대한 研究와 조사가 이루어지고 필요한 연구 인원을 산출해 내어야 했다. 그래서 研究者는 研究만 하던 그 자체가 사회에 공헌이 되게끔 말이다. 講義나 研究가 모두 현실만을 바탕으로 하고 그것을 위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10년, 20년 후에 어느 분야의 학문을 필요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 제공과 조정으로 학자의 研究 자체가 사회에 공헌이 되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교수의 현실 참여 문제를 教授 研究室에 관련시켜 생각해 보자. 내가 공부하던 학교의 예를 들고 싶다. 나는 처음에 프랑스 파리 대학에 있다가 나중에 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로 옮겼다. 파리 7 대학은 몇몇 사람에게는 교수 연구실이 있었지만, Ecole des Hautes Etudes 대학에는 교수 대부분이 개인 연구실이 없고 학과 사무실만 있었다. 따라서 교수를 만나려면 면담 신청을 하고 약속 시간을 받아야 했다. 이렇게

되면 教授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만나서 이야기할 主題가 확실해진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처럼 선생을 어려워 하고, 자기 생각의 정리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는 동토에서는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Ecole des Hautes Etudes대학에는 교수의 個人研究室이 자신이 소속한 研究會나 活動機關 내에 있다. 그래서 나의 지도 교수는 Guimet 박물관 안에 연구실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필요한 부분에서 노력만 하고 있어도 교수의 사회 참여가 보다 적절하게 유도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인지 프랑스에는 이러한 간접적인 사회 참여로 학위를 2, 3개씩 가진 학자, 또는 논설위원이면서 교수인 사람 등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선학들의 도움을 얻고 동료들과 나누고 싶다는 욕심에서 나온 생각들을 적어 보았다.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동시에 가장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교육과 성직의 길이라고 믿으면서, 오늘도 그 한 길을 걸으며 배우고 나누려는 욕심을 한껏 내어본다. \*